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내일 국내 출시

대화면 스마트폰 '전쟁의 서막'

쿼드HD·출고가 인하...경쟁력 강화
화면 커진 '아이폰6' 삼성 대항마로
5.2인치 소니 '엑스페리아Z3' 복병

올 가을, 한국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대전이 펼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제조사들이 일제히 국내 시장에 신제품을 쏟아낼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라는 변수가 있는 10월에 신제품들이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삼성 대화면 '갤럭시노트4' 26일 출시

가장 먼저 선보이는 제품은 삼성전자의 대화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다.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24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노트4를 26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고가는 기존 배터리를 하나로 줄이면서, 기존 100만원대에서 95만7000원으로 낮췄다.

갤럭시노트4는 5.7인치 쿼드HD 대화면에 개선된 필압 등을 갖춘 S펜을 활용한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1600만 화소에 스마트폰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적용한 후면 카메라와 370만 화소에 밝은 조리개값을 제공하는 전면 카메라를 갖췄다. 약 30분만에 배터리를 5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 기능도 눈에 띈다. 이 밖에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밀리크'와 인터랙티브 디지털 매거진 '페이퍼가든' 등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도 선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엡지 스크린을 탑재해 스마트폰의 우측까지 정보를 표시해주는 '갤럭시 노트 엡지'도 10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미·중·일 신제품도 한국 시장 공습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4를 통한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 유지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경쟁사들의 대화면 제품이 비슷한 시기에 대거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역시 애플의 '아이폰6'이다. 무엇보다 화면 크기를 기존보다 늘리는 파격이 선보이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품은 애플이 설계한 A8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더욱 빠른 오토포커스 기능을 적용한 카메라도 달았다. 다만 이르면 10월 말 늦어지면 12월이나 한국에 출시될 전망이다. 갤럭시노트4와의 정면 대결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기업의 신제품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상대다. 기존과 달리 기술력이 크게 뒤지지 않는데다, 가격 경쟁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 먼저 소니는 현재 예약 가입을 받고 있는 '엑스페리아Z3'를 곧 정식 출시한다. 5.2인치 대화면과 고감도의 2070만 화소 카메라를 달았다. 가격은 79만9000원. 소니는 이와함께 4.6인치 '엑스페리아Z3 콤팩트'도 10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도 10월 중국 내에 신제품을 선보인다. 화웨이에서 출시할 스마트폰 '아너6'은 5인치 풀HD 디스플레이와 3100mAh 배터리 등을 갖춘 제품이다. 알뜰폰 시장을 통해 진출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30만~50만원대로 점쳐진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제조사에서 다양한 스마트폰 신제품을 한국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6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와 출시를 앞둔 애플의 '아이폰6', 소니의 '엑스페리아Z3'(맨 왼쪽부터).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제외...소비자 혼란 우려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된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통

법의 핵심 요소다. 이동통신업계 등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찬성, 삼성전자는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빠질 경우 또 다른 소모적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신규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조사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지원금에 대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김명근 기자

팬택, 결국 매각 수순 밟나

서울중앙지법 매각공고 신청서 승인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결국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매각공고 신청서 승인을 받았다. 채권단은 10월7일까지 팬택 인수요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서류평가

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정밀실사 수행,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제출·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과 인도 등 해외업체들이 팬택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팬택은 채권단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각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근 기자

관광공사, 문화관광축제 글로벌 체험단 운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총 180명 참여

한국관광공사가 문화관광축제 글로벌 체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외국인 체험단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18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축제별로 10명씩 총 18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26일부터 10일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비롯해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18개 축제를 찾아가 음식, 숙박, 교통 등 주변 환경과 외국인 안내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의 SNS를 통해 각국별로 널리 홍보한다. 관광공사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외국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kobaikid

아모레퍼시픽 27일까지 신입사원 공채

(아모레퍼시픽이 27일까지 그룹 계열 5개사(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이니스프리, 아모스프로페셔널)의 '2014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직군은 마케팅, 영업(지원), R&D 연구, 디자인, SCM, 경영지원(인사·회계·정보·전략)이며 아모레퍼시픽 채용사이트(recruit.amorepacific.co.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룹 계열 5개사 간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기자자동차,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

기자자동차(주)가 10월2~11일에 열리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공식 후원한다. 기자차는 24일 기자차 압구정 사옥에서 조용원 국내마케팅실장,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영화배우 문정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기자차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하는 주요 영화배우들과 유명 감독들에게 의전차량 및 업무차량으로 K9, K7, 울 뉴 카니발, 울 뉴 쏘렌토 등 총 130대의 차량을 제공한다. 또 야외 행사장 비프빌리지(BIFF Village)내에 기자차 브랜드 전시관을 설치하고 방문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6·27일 코엑스에서 '관광산업 채용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을 관광박람회를 맞아 26~27일 코엑스에서 '2014 관광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 스스로 능력을 홍보해 구인기업의 관심을 끌어나고 자연스럽게 취업까지도 연결되는 '구직자 중심의 모델'을 구축한다. 특히 여행사 및 호텔 등 전통적인 관광기업 외에 관광 벤처기업을 비롯해 의료관광, 외식업체, 항공교육기관, 관광관련 IT 및 유통, 금융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이 '융복합 관광산업' 부스에 참여한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f

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방치하기 쉬운 '베체트병'...초기 치료 중요

하루하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과도한 업무나 잦은 야근, 회식 등의 '사회 피로함'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 피로함은 조금 쉬고 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극심하게 저하된 면역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면역질환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체트병이다. 베체트병은 단순히 신체가 피로할 때 나타나는 일상적인 증상 외에도 입 안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내염 증상이 발생해도 단순한 신체 피로감 정도로 쉽게 치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증상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악화되면서 구내염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치명적인 신체 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베체트병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

베체트병에 대한 초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전형적인 구강궤양 증상을 시작으로 심장이나 폐 등 내부 주요 기관으로도 염증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표면적인 염증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베체트병은 면역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근

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면역체계 바로 잡는 AIR치료프로그램

베체트병과 같은 면역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초기 치료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일단 증상이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증상을 초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지스한의원의 AIR치료프로그램이다. AIR치료프로그램은 한의학 치료방법을 적용한 면역치료법이다. 개인의 체질에 기반한 맞춤형약, 면역약침, 진수고, 화수음양단 등의 한의학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환자 개인의 면역상태, 체질, 증상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맞춤 처방해 체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재발에 대한 우려 없이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지스한의원 장혁 원장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의료봉사단체 침구학회 의료부장
대한한방류마티스학회 정회원
한방자기면역질환연구회 정회원
대한중경학회 정회원



양행모의 아이 러브 스타이지 | 뮤지컬 '더 데빌'

괴테 '파우스트'를 뉴욕증권가로 옮기다

보기 드문 '이단적' 작품...반응 극과극
작품 곳곳 숨겨진 상징 찾는 재미 쏠쏠
락 밴드 속 바이올린? 인물 내면 묘사

명작인가 괴작인가. 뮤지컬 '더 데빌(The Devil)'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3인극 락 뮤지컬을 표방한 작품. 연출가 이지나씨의 재해석은 "한 번 보고 흠뻑 반했다"와 "열 번을 봐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절반씩 얻고 있다. 꽃다발과 돌다발이 동시에 날아 들고 있는 것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현대 뉴욕증권가로 옮겨 놓은 '더 데빌'은 온갖 상징적인 장치와 오페라의 냄새마저 풍기는 락 음악이 주축이다. 상당히 난해하다. 블랙먼데이로 한 순간에 밀바닥으로 떨어진 증권맨 존 파우스트(송용진 분), 그에게 '힘'을 주는 대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달라는 계약을 제시하는 X(한지상 분), 약으로 변해가는 존을 악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레첸(차지연 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더 데빌'에는 성서의 상징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데빌'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속장점이랄 수는 없지만)있을 것이다.

성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존 파우스트와 그레첸은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하와)다. 악마(X)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맛보지 않겠느냐"며 이브(그레첸)에게 접근하는 대신 아담(존 파우스트)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창세기를 둘러싼 이단의 설에 대한 혐의(?)도 얹힌다. 악마가 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레첸을 능욕하는 설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레첸은 X의 씨앗을 임태하고, 존은 정신분열을 일으킨 그레첸을 버린다. "악마와의 계약은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며 울부짖는 그레첸에게 존은 "내게는 네가 지옥이야"라며 맞받아 친다.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존은 (예상대로)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이다.

●도처에 감추어진 상징과의 보물찾기...요즘 보기 드문 '이단적' 작품

도처에 숨겨진 상징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다. 워낙 절묘하게 감춰 찾아도 찾아도 보물 쫓기는 끝없이 나온다. 락 뮤지컬답게 무대 왼쪽에는 밴드가 배치되어 있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의 전형적인 락 밴드 편성 외에 바이올린이 눈길을 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재해석한 뮤지컬 '더 데빌'은 천사와 흑령이 엮이는 작품이다. 극중 밀바닥으로 추락해 악마와 위험한 거래를 하는 증권맨 존 파우스트를 연기하는 송용진. 사진제공 | 알앤디박스

등장인물들의 옷에도 관심을 둘 것. 세 사람은 화이트, 블랙, 이도 저도 아닌 중간색의 옷을 장면에 따라 갈아입는다. 바이올린의 불안한 선율이 인물의 내면을 묘사한다면, 옷의 컬러는 정체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송용진과 같은 흰 옷을 입고 있던 그레첸은 X에게 능욕을 당하고 악의 씨앗을 임태하게 되면서 검은 옷을 입는다.

부풀린 가발과 치렁치렁한 드레스, 샹들리에와 무도회가 등장하는 유럽풍 뮤지컬이 특색하고 있는 요즘 국내 뮤지컬 무대에서 '더 데빌'은 확실히 '이단'적인 작품이다. 앙상한 철골구조물과 계단만으로 꾸민 무대, 레이저쇼를 발불케 하는(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명, 귀청을 찢는 음악과 배우들의 끊임없는 절규는 확실히 요즘 트렌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마지막 장면. 행복해 하는 존과 그레첸의 모습을 한없이 따뜻한 미소를 띤 X가 바라보고 있다. '악' 대신 '선'을 선택한(했다면) 이들 커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의 회상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결론은 하나다. 악마는 이렇게 늘 인간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ranbi@donga.com 트위터@ranbi361